

보도시점 2026. 7. 16.(목) 12:00 배포 2026. 7. 16.(목) 09:30

책과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 '서담재' 문을 열다

- 책을 보관하는 서가 중심의 공간이 아닌 직원 휴식·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 지역서점과 손잡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지역을 잇는 상생 모델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16.(목) 정부세종청사 5동에 새로 조성한 기획예산처 도서관 '서담재'에서 지역서점 대표, 지역 작가 및 직원들과 함께 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 기획예산처 도서관 개관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7.16.(목), 11시 / 기획예산처 5동 6층(629호) 도서관
- 참석자: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서점 대표(꾸메문고 두번째 이야기, 책방에일), 직원 등
- 주요내용: ¹부개관식 + 지역서점 협약식, ²부지역작가 북콘서트

‘서담재(書談齋)’는 내부 공모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책(書)과 이야기(談)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통상적인 도서관이 아닌, 직원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휴식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전자도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서가 공간을 축소하여 북카페형 라운지로 조성

이날 개관식은 ‘지역과 함께하는 직원 휴식·소통의 공간’이라는 도서관의 운영 가치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지역서점과 협력 강화 및 직원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세종시 내 지역서점인 꾸메문고 두번째 이야기(대평동), 책방에일(조치원읍)과 협약식을 하였다. 지역서점과의 협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차별화된 큐레이션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서점과 협약을 통해 도서관 서가 일부에 ‘한 칸의 서점 코너’를 운영한다. 지역 서점에서 **매월 주제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큐레이션** 및 **도서 공급**과 함께 **추천 도서에 대한 코멘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망이나 베스트 셀러 위주의 획일화된 도서 선정에서 벗어나 **지역서점의 취향과 안목이 담긴 큐레이션**을 통해 직원들에게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희망 도서를 신청**받아 **지역서점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서점과 협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역 출신 **김이설 소설가**를 초청하여 ‘**삶을 돌아보는 소설 읽기**’라는 주제로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강의와 함께 직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소설을 통해 삶과 일상을 돌아보고, **책이 주는 위로와 성찰의 가치**를 함께 나누었다. 앞으로도 **지역작가와의 북콘서트** 등 소규모 **문화 행사**를 지속적 운영하여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서점은 **문화 생태계의 뿌리**이자, 주민들의 **생활 문화 거점**이라고 강조하고 “**서담재가 지역의 작은 서점들이 지켜온 문화적 다양성을 품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지역을 잇고,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서담재가 직원들의 쉼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담재**’는 **지역서점과의 협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고은 (044-214-1450)
		담당자	서기관	심지애 (ziaee76@korea.kr)
			주무관	김경연 (kykim09@korea.kr)
			주무관	조효숙 (chs70725@korea.kr)